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Buddhist Chongji Order



2012년 불교총지종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사회화합과 계층간 융화의 한마당”

2012. **10. 6** (토) 17:00~20:00 동해중학교

주최 | 불교 총지종
주관 | 불교 총지종 부산경남교구
사회 | 지은아(부산불교방송 아나운서)
연주 | 위드 오케스트라
출연 | 불교 총지종 마니합창단, 금강합창단, 만다라합창단
특별출연 | 조항조, 붓다중창단, 관무용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불교TV, BBS 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우리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불교플러스,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충기총지종



조항조

사회:지은아

부산불교방송아나운서



불교충지중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충지중보

2012년 9월 5일

음력 7월 19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충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가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6년 제154호



종조멸도절 법어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우리 충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지종은 올해로 창종 4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원정종조님의 유훈을 받들어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스승과 교도가 합심과 단결

로써 수많은 간난신고를 헤쳐 오면서도 흔들림 없는 충지로 오늘의 우리 충지종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신흥종단들의 경우를 보면 창종주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후계 과정에서 치열한 세력다툼으로 인하여 그 종단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종단들이 지금도 그러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우리 충지종은 종조님의 입멸 이후에도 법통을 잘 유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단이 법통을 훌륭히 계승하여 오늘날과 같은 규모를 가지고 한국의 우수 종단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종조님의 천재적인 조직 구성과 민주적인 제도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원정 종조님의 거룩하신 생활불교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시대에 맞는 교화 방안을 개발하여 우리 충지종을 더욱 큰 종단으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승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도 여러분! 우리 종단도 이제는 긴 잠에서 깨어나 창종 당시의 열화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고 참 대승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행여나 아직도 고루한 생각에 얽매어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시기질투하며 종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참회하고 종단중흥과 새종풍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이 나라의 불교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활불교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락이나 정토가 죽어서나 가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세계를 지옥으로도 극락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불법을 실천하여 이 땅을 극락으로도 만들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위하여 다 같이 매진합시다.

오늘 32주기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가 함께하시어 무한한 복덕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충기 41년 9월 8일
불교충지중 종령 효강 합장

원정대성사 열반 제32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 9월 8일 원정기념관 및 전국 사원에서 봉행 예정

원정대성사 열반 제32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오는 9월 8일 서울 충지사 원정 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봉행된다. 이번 추선불사는 현화 및 훈향정공, 추선사, 종조 육성법문, 창교가 제창등의 순서로 진행 될 예정이다. 효강 종령 예하는 “창종 당시의 열화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고 참 대승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며 법어를 통해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승직자와 교도들에게 당부했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밀교의 역사를 다시 세우는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일직 손(孫)씨 가에서 탄생하셨다. 일찍이 한학을 익혀 사서삼경에 능통하셨고, 일제강점 하에 고등 교육을 이수하시고,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셨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서 대성사께서는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한국전쟁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회당 조사의 입적 후에는 진각종 총인의 자격으로 진

각종을 이끌며 《응화성전》《충지법장》 등을 편찬하시면서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한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밀교수행에 준제법을 도입하시고, 새로이 충지종을 입교개종 하면서 정통밀교종단을 이 땅에 우뚝 세우셨다.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교상과 사상에서 완벽한 밀교를 확립하고, 총본산 충지사를 비롯 전국에 사원을 건립하셨다. 대성사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의 정신은 오늘날 전국의 교도들의 종지가 되어 불퇴전의 불공 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김종열 기자

음악과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도약의 행사 이어져

-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및 제1회 만다라매 불교 축구 대회 봉행 예정



긴 더위와 태풍을 이기고 맞는 풍요로운 가을에 불교 충지종의 다양한 가을행사가 이어진다. 먼저 오는 9월 15일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충지종이 주최하는 『제1회 만다라매 불교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불교충지중(통리원장 지성정사)이 주최하고 불자축구팀 FC부타와 충지드래곤즈가 주관하는 제1회 만다라매 불자축구대회가 열린다. 충지드래곤즈, FC부타, 승가대, 불광사, 한국불교기자협회, 선우, 전국사찰사암연합회, 대불련 등 총 8개 팀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번외 경기로 족구도 열린다. 대회장 지성 충지중 통리원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불자 축구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포교의 방편으로 자리 잡기를 서원합니다.”며 이번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10월 6일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는 『2012.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가 봉행된다. 충지종 부산·경남 교구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충지종도들의 화합과 사회 통합을 염원하며 불교음악의 한마당을 펼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종립학교에서 개최되어 불교를 통한 인재양성에 주력한 종단의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된다.

부산·경남 교구장 수현정사는 “지난해 서울 공연에

이어 올해는 불자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전년도와는 달리 모든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부산·경남 교구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일치단결하여 최고의 예술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교구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충지종도 및 종립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부산불교계 주요 귀빈,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이 동참할 예정으로 부산 지역 불교계에 충지종의 위상을 재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 정각사=김종열 기자

원정 대성사 32주기 멸도절



종조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건인자 역할을 하시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단 불교충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 32주기 멸도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 시 충기 41년 9월 8일 (토)
대 상 충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장 소 충지종 원정기념관 및 전 사원

천태중 승려수계산림법회 봉행

-단양 구인사에서 비구, 비구니 14명 배출

천태종이 새 스님 14명을 배출했다. 천태종은 9월 4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승려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구인사에 입산해 3년 동안 행자 생활을 마친 계법승 3명과 계정니 11명은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증명법주로, 3원장 스님·각 부장 스님·비구니 원로 스님을 3사 7중사로 모시고 불제자로서 마음을 밝혀 삼계중생의 스승이 되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수계자들의 계사·은사·법사로서 심선계를 설했다. “오늘 부처님 계를 받아 마음에 새기고 심선계 잘 지키기 바란다. 어떤 법을 하더라도 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며 “계율이 청정해야 성불할 수 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진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계를 지키고 심선해야 한다”고 심선계를 설했다. 또 “수계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잘 듣고 애착을 끊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용 종정스님은 수계자들에게 가사와 장삼, 법모를 수여했으며,

삼사철증사가 수계자들에게 법모를 씌워줬다. 수계증은 계법승 수종 스님이, 도첩은 계정니 묘연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불교방송(BBS) 공영 미디어랩 제외 위기

-불교방송 임직원 및 교계 단체 정부의 편향적 미디어 정책 규탄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랩법 후속 조치가 종교 편향 정책이라는 불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의 임직원들과 불교단체 관계자들이 불교방송의 공영 미디어랩 지정을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방송 실무자를 제외한 BBS 불교방송 임직원과 불교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8월 20일 아침 8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BBS 불교방송의 공영 미디어랩 지정을 위한 정진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정진 실천대회에서는 방통위의 초헌법적인 미디어 시장 생태계 교란 정책을 비판하고 불교방송이 공영미디어랩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경과보고와 구조제창,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차별특위 위원장 주경스님 등 불교계 스님과 단체 관계자들의 지지발언 등도 함께 진행돼 잘못된 미디어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범 불교계 차원의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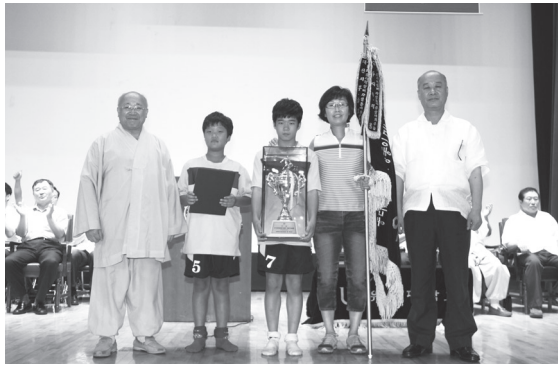


불교방송 임직원 일동은 8월 20일 발표된 성명서를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앞으로 릴레이 형태의 시위로 편향적 미디어정책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열 기자

진각종 통리원장배 풋살대회 봉행

-자성동이(초등부) 포항 슈퍼사이언스팀 우승



전반전을 1대 1로 비긴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한 두 팀은 3대 3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경기종료 3분 여를 남기고 금강FC팀이 결승골을 넣어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페어플레이 상은 경주FC팀(중등부), 단합상은 서울 FC타이거즈

팀, 응원상은 포항 안강FC팀, 예결상은 부산 충무공팀, 질서상은 경산FC팀, 봉사상은 경주 처용팀이 각각 차지했다. 폐막식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폐회사를 통해 "지역은 다르지만 또래끼리 모여 정을 나누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환희한 마음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경기하는 모습 속에서 진각종의 미래를 보았다"면서 "자성동이·정소년 풋살대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7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풋살대회가 8월 16일 경주 위덕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초등부에서는 포항 슈퍼사이언스팀이 조직력을 앞세운 교석FC팀을 4대 3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교석FC팀은 경기 초반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급격한 체력 저하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3·4위전에서는 금강FC(B)팀이 처용팀을 3대 0으로 누르고 3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열린 중등부 경기에서는 총 9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 결과 대전 금강FC팀과 삼인3팀이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김종열 기자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英譯) 완간

-한글역에 이어 영역 총13권 완간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는 『한국전통사상총서』 전 13권의 영역 사업을 마무리 했다.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精髓)인 원효, 의상, 지눌, 휴정 등의 저술을 한글과 영어로 번역·출판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불교사상을 국내외의 학술·문화계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전통사상총서의 의의는 첫째, ‘다자간(多者間) 번역시스템’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번역서는 번역자 1~2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다자간 번역시스템’은 공동번역 및 교정 작업으로 진행되며(한글역), 아울러 한글역자와 영역역자간 교차검토라는 확인과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고대(古代) 역장(譯場)에서는 역

주(譯主), 증의(證義), 증문(證文), 서자(書字), 필수(筆受), 첩문(綴文), 참역(參譯), 간정(刊定), 운문(潤文)의 9개 직책이 갖추어져 있어 이들의 상호 검증을 거쳐 불교경전을 번역하였다.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의 ‘다자간 번역시스템’은 고대(古代) 역장(譯場)시스템을 발전적으로 현대에 복원한 것이다. 둘째, 다자간 번역시스템을 통한 후학(後學) 양성이다.

셋째, 한국불교문화의 위상 제고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국내외의 한국학 및 불교학 전문가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은 물론 해외 주요대학과 한국학 관련 연구소에 배포될 계획이다. 이번 완간으로 한국문화의 사상체계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북한 수해 복구 지원 결의

-8월29일 제3차 이사회에서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이하 종단협)는 총지종 인선 총무부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9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북한 수해 피해 복구지원을 결의했다. 수해 지원 물품은 9월 25일까지 각 종단별로 배당된 성금을 접수, 한국 정부 및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한 뒤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이사회에서는 신임 상임이사에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범광 스님, (재)일불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스님, 신임

이사에 대응종 총무원장 윤남 스님, 원용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을 선임했다.

또한 제1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일본대회 관련 내용과 제8회 한국수행단 중국불교수행체험 일정도 보고 받았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현대사회에 있어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임정교성회 보문관에서 열린다. 중국불교수행체험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장쑤성 쑤저우 충원사에서 열리며, 총지종 등 각 종단 비구·비구니 스님을 포함해 40여 명이 참가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12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제33차 시코쿠대회 결산 및 제34차 한국대회 논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이사장 정산 스님)는 8월 29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지종 인선 총무부장 등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13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34차 한일불교교류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장소 선정 등은 사무국에 위임했다. 또 회비를 장기 미납한 열반종 총무원장 해국 스님을 이사에서 제명키로 결의했으며,

(재)일불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스님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되는 제8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도 승인했다. 여성교류대회에는 한국측 40명, 일본측 30여 명이 참가하며, 10월 31일 부산 삼광사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뒤 구례 화엄사에서 108염주 만들기, 전통다도체험, 새벽예불 등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8/2	10,000
개천사	강순시	8/17	10,000
개천사	송대겸	8/17	20,000
개천사	이희강	8/17	10,000
개천사	한래호	8/17	10,000
개천사	송상규	8/17	30,000
건화사	정다경	8/7	10,000
건화사		8/7	240,000
방생성금			
관성사	박현숙	7/31	10,000
관성사	인선	8/20	20,000
기로	해정	8/1	10,000
기로	대관	8/20	10,000
기로	대자행	8/20	10,000
기로	밀공정	8/20	10,000
기로	법수원	8/20	10,000
기로	법장화	8/20	10,000
기로	법지원	8/20	10,000
기로	불멸심	8/20	10,000

기로	사홍화	8/20	10,000
기로	상지화	8/20	10,000
기로	수증원	8/20	10,000
기로	총지화	8/20	10,000
기로	선도원	8/20	10,000
단음사	천공	8/6	4,000
단음사	법연지	8/14	10,000
덕화사	시정	8/20	10,000
덕화사	원만원	8/20	10,000
밀인사	정정희	7/31	5,000
밀인사	이혜성	8/14	20,000
벽룡사	무명씨	7/31	10,000
벽룡사	무명씨	7/31	10,000
벽룡사	양정현	8/21	10,000
벽룡사	양지현	8/21	10,000
삼밀사	이현숙	8/17	50,000
선립사	심지장	8/16	10,000
선립사	정항식	8/16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8/8	65,000

수인사	김봉기	7/26	10,000
수인사	장영택	7/27	50,000
수인사	장영택	8/6	50,000
수인사	황보기문	8/20	20,000
승천사	원봉	8/9	10,000
승천사	지선행	8/9	10,000
시법사	진여행	8/16	10,000
실보사	이순옥	7/31	10,000
운천사	반야화	8/6	20,000
운천사	이성미	8/17	50,000
자석사	김은산	8/20	30,000
자석사	김보경	8/20	20,000
정각사	구정희	8/16	20,000
정각사	김문수	8/17	10,000
정각사	박동휘	8/20	10,000
지인사	승효제	8/9	10,000
지인사	허성동	8/24	30,000
초록어	김명순	8/14	5,000
린이집			

총지사	이인성	8/3	30,000
총지사	법등	8/3	20,000
총청전라교구		7/26	408,000
방생성금			
통리원	장동욱	8/22	10,000
통리원	김정연	8/22	5,000
통리원	김지영	8/22	5,000
화음사	강순림	8/2	5,000
화음사	박옥과	8/20	10,000
흥국사	지정	8/9	20,000
	무명씨	8/8	10,000
	김갑선	8/20	10,000
	박종석	8/22	20,000

7월26일부터 8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2012,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준비하는 그 열기의 현장

오는 10월 6일 개최 예정인 제2회 충지종 통일 음악예술제를 준비하는 충지종 합창단 단장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 부산·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 대구·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단장들의 각오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마련했다.



서울·경기교구 마니 합창단
박정희 단장



대구·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최지형 단장



부산·경남 교구 만다라합창단
김윤경 단장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부산에서 공연이 진행되어 더 흥분 됩니다.” 박정희 단장은 상기된 열기로 마니합창단의 준비 상황을 전했다. 서울 마니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충지종 통리원 2층 반아실에서 정기 연습을 갖는다. “서울·경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작년에 비해 연습의 시작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시간의 벽을 넘어 최고의 화음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며 수 십 명을 다독이며 이끌어 나가는 단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마니 합창단은 전국 어디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실력이 출중하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공연에도 교도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최고의 실력으로 공연장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

“대구·경북은 각 사원간의 거리가 멀어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8월 29일 수요일 오후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각 사원의 단원들이 개천사로 모여들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왔다. 연습이 시작 되자 단원들은 반주자에 귀를 기울이고 화음을 맞춘다. 최지형 단장은 “매번 연습 때마다 차량을 제공해 주시는 스승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공연을 해 거리가 가까워 한결 마음은 편합니다. 금강합창단은 단원의 숫자는 작지만 1985년 개천사 합창단으로 출발해 무려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는 합창단입니다.”며 금강합창단의 실력을 자랑했다. “금강합창단은 대구 시내에서 여러 번 공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KBS를 공연은 무대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대구 아줌마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도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며 작지만 큰 실력을 보여 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산·경남이 추위가 되어 충지종의 큰 행사를 하게 되어 마음이 분주합니다.” 태풍 불라넬이 전국을 휩쓸던 날, 부산 경각사 합창단 연습실에서 만다라합창단 김윤경 단장을 만났다.

“이번 통일음악예술제는 불자의 도시 부산에서 열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종립 동해중학교에서 무대를 펼친다 생각하니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며 “단원들 개개인의 각오가 작년과는 사뭇 다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중심 합창단으로 그 책임감 때문이겠죠.”라고 만다라합창단의 분위기를 전했다. “만다라합창단은 부산 지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충지종의 위상을 지역에 알리고, 정통밀교 종단 합창단으로 당당히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며 행사 주관 합창단 단장으로 각오를 밝혔다.

김종열 기자

진언밀교 정법 교화를 위해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경관대정사 49재 회향



경관대정사의 49재가 9월 5일 서울 관선사에서 원만히 회향했다. 관성사 주교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49재는 지성 통리원장 비롯한 서울, 경인교구 스승님들과, 기로스승님, 유가족들이 참석한가운데 봉행되었다. 충지종 49재 의례로 진행된 법회에서 지성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두철미한 수행 정진으로 후배들의 모범이 되셨던 대정사님의 뜻을 이어 종단발전과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정사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참석해 주신 스승님들과 교도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경관대정사님의 교화와 수행정진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가족과의 상호 합장 반배를 끝으로 49재는 원만히 회향했다.

청춘을 다 바친 동해중의 산 중인 『양호길 선생님』

36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감



8월 28일 오전 8시 30분 종립 동해중학교 교무실에서는 청춘을 바쳐 제자를 양성한 노교사의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36년을 오로지 학생지도와 학교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한 주인공은 기술교과 담당 양호길 선생님(62)이다. 지성 이사장을 대신해 학교법인 사무국장 법선정사가 감사패를 전달했고,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들였다. 양호길 선생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랑하는 후배교사들을 교육의 전장에 임하게 해주고 흔쾌히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성과를 위해 조금씩 서두르지 마시고, 먼 장래를 위해 다양한 방편으로 일을 해나가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믿습니다.”며 후배교사들을 격려했다. 36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너무도 짧은

퇴임식이었지만 긴 시간을 통해 얻은 인생과 교육 철학에 대한 알맹이를 후배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퇴임식을 마치고 법인 사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호길 선생님은 조용한 미소로 말문을 열었다. 경남 진주가 고향인 양호길 선생님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다. 제1차 오일쇼크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선생님은 군복무를 마쳤다. 제대 후 우연한 기회에 당시 동해중학교 교사로 있던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교장 선생님의 발탁으로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제대 후 기업에 입사를 준비하다, 우연한 기회에 교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어찌 보면 정해진 길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맞는 것도 저에게는 큰 행운입니다.”며 교단에 처음 서게 된 인연을 소개했다.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끼던 제자가 전학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 모습도 지켜보았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도 겪었다. “삶의 고비마다 가족 같은 동료 선생님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서기 힘들었을 겁니다. 친형제 자매 이상으로 긴 시간을 같이 한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퇴직을 하지만 언제라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달려 올 것입니다.”며 36년간의 교직 생활을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준 동료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제 는 가정으로 돌아가려 한다. 진해 주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아들과 경기도 여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딸은 모두 장성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선생님은 그래도 할 일이 남았다. 노환으로 고생하는 팔순 노모의 병간호를 위해 아들의 자리로 돌아간다. “남자로서 사회에 진출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마지막 효도를 다할까 합니다.”며 퇴직이후의 삶을 조용히 밝혔다. 조용한 미소 속에 스승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강인한 경상도 사나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양호길 선생님의 앞날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가 충만하기를 서원한다.

부산 동해중=김종열 기자

바라밀공부방 해병대 캠프 참가

동래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와
연합으로 22명 참가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부산 『바라밀 공부방』 학생들이 해병대 병영 체험 캠프를 다녀왔다. 8월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동래구 사회복지기관 협의회와 연합으로 참가한 이번 캠프에는 김부강 지도교사를 포함 22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는 공부방 학생들의 심신 단련과 극기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학생들은 해병대 캠프에서 병영체험, 극기훈련, 수상스포츠, 정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바라밀공부방=김부강 교무

총지사 이옥희 보살 몽고 미용봉사 몽고 비양천더말리시(市)로 7일간 다녀와



총지사 이옥희 보살이 몽고로 미용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의 해외봉사프로그램에 동참, 몽고의 오지인 비양천더말리시(市)에서 미용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지인 비양천더 말리시(市)는 수도 울란 바트르에서 서북쪽으로 자동차로 1시간 30분이나 떨어진 오지 마을이다.

총 가구수는 250여 가구로 이옥희 보살은 이곳 주민 150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 이옥희 보살은 평소에도 부처님의 자비 보시행을 실천하고자 총지사 교도들을 위한 미용자원 봉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연이 닿는 곳 어디라도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총지사= 박정희 편집위원

불교충지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드 다르마

위드 다르마는 진리의 말썽을 오늘이 전하는 길잡이입니다

Contents 9. 2012

불교이야기. 바른 실천은 바른 삶에서 시작된다_화령정사
수행이야기. 생각 돌보기_성운대사
[테마기획] 성내는 마음을 부숴 버려라_본각스님
진언수행의길_호신진언_법경정사
[기획연재]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_원철스님
만다라세상. 마지막 가는 길_지정정사
마음의등불. 험이언불체몽중_왕양명
행복찾기. 배롱나무_보현전수
차양기속으로. 한번 속아 보시면 안될까요?
빠알리경전읽기. 어리석음이 앞에 있으면
진리의 길. 병고에 관하여 보정
아주특별한선물. 종고를 가진 사람들에게_달라이라마
이달의경전. 우란분경
씨앗알알. 맨 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이야기꽃. 만행_김지수
지혜의뜨락. 군자가 항상 생각하는 아홉가지_공자
디딤돌. 불교계의 사회공헌프로그램, 그 대안은?_이찬영
생각하는 우화. 신부가 지켜야 할 가르침 세가지
함께보는불교미술. 홀로 도를 깨친 나만존자
산책. 삼의 다들이집_홍태수
걸말의담기이야기.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_이로사치아
건강한방상. 조랭이떡 잡채떡밥
우리말바루기. QR코드->정보부니 | 교화

☆ 진리의 숲, 법구경이야기

하는 미움 때문에 일어난 나쁜 기운이다.
미움의 뿌리는 일순간에 가시 같은 줄기와 자기를 만들어
마음의 숲을 사납게 만든다.
그러므로 미움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움으로 가득 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미움을 식혀
버릴 수 있다면, 미움의 의한 학도 이미 자취가 없다.

- 본문, 성내는 마음을 부숴버려라 중에서

★ 담고 싶은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충지종 위드다르마 편집부
- 우편 계좌 : 우리은행 122-047811-13-128 예)불교충지종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불교의 선정 11

사념처 수행

사념처는 일체법을 총괄한다



화령
(중앙교육원장)

“사념처 수행을 통하여 심신의 고통을 가라앉히고 정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즐거움이 항상 그대로 머무는 것처럼 집착하는 것이 전도된 낙이며 이러한 느낌을 관찰하여 괴로움인 것으로 바로 아는 것이 수념처의 수행이다.

”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세간의 모든 탐욕과 번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열력에 상응하는 정견과 정지를 얻을 수 있고 생노병사와 그에 따른 모든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 사념처의 관찰 대상인 신(身), 수(受), 심(心), 법(法)은 불교 교법의 모든 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념처를 일러 '일체법'이라고도 한다. 불교 교리 가운데의 오온, 십이처, 십팔계, 십이연기, 사성제 등의 교법은 모두 사념처의 시각에서 해설을 더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념처가 일체법이라고 해서 다른 교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념처가 제법의 핵심 강령이고 일체법은 모두 사념처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념처가 제법의 종합이고 총괄이라는 의미이다.

사념처의 수행은 종합적이고 전면적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수행법이다. 사념처 수행을 통하여 심신의 고통을 가라앉히고 정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고 있는 탐욕, 진애, 혼침수면, 악작도거, 의(疑) 등의 오개(五蓋)를 제거하여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일체의 무명번뇌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아함경》에서는 사념처 수행을 '불좌(佛座)'에 비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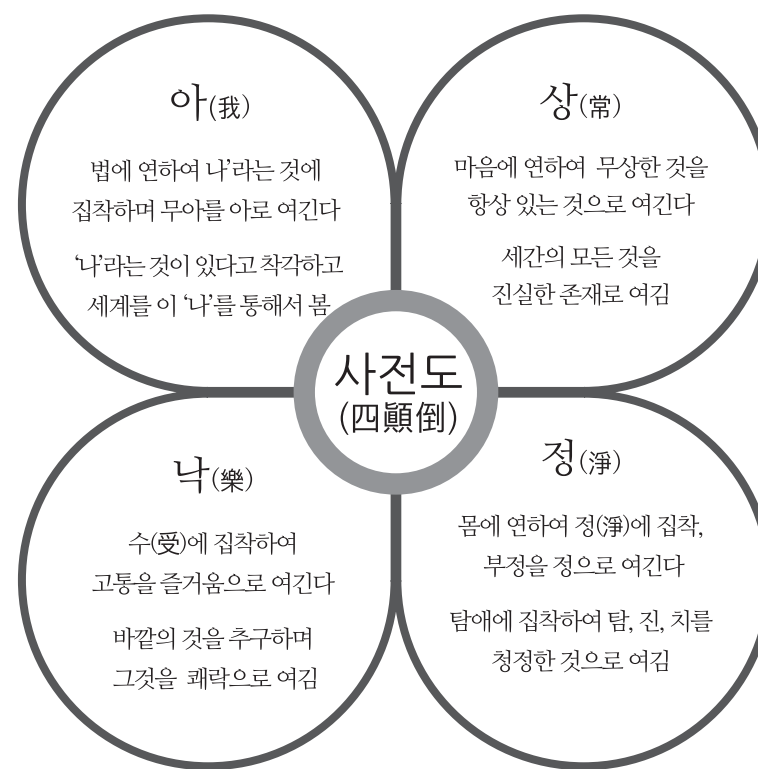
사념처 수행은 초심자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제불이 다 의지하여 열반을 얻으며 모든 아라한들이 항상 사념처 수행을 하여 누진과 열반을 얻는다고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다. 그 밖에 사념처는 하루 24시간 가운데의 행, 주, 좌, 와, 어, 목, 동, 정,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각성하여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불교의 최고 수행법이다.

사념처 수행을 통하여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네 가지 전도망상을 바로잡는 일이다. 전도망상이란 글자 그대로 거꾸로 된 우리의 잘못된 관념을 말한다. 그것에 네 가지가 있으므로 사전도(四顛倒)라고 한다. 사전도는 사도(四倒), 혹은 사도견(四倒見)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네 가지의 잘못된 망견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하나의 '나[我]'가 있다고 집착하여 '자아'라는 관념이 생기고 이 자아는 불변의 것이며[常], 즐거운 것이[樂], 깨끗한 것[淨]이라는 망견을 내게 된다. 더욱 자

사전도
(四顛倒)

'나(我)'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에서 상(常), 낙(樂), 정(淨)의 잘못된 견해가 생긴다
아(我) → 상(常), 낙(樂), 정(淨)



세하게 말하면 사전도는 중생들이 몸을 깨끗한 것이라고 집착하고 오관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즐거운 것이라 집착하고 항상 변하는 마음을 항상 그대로인 것처럼 집착하고 모든 사물과 현상(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을 보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 만물의 실상은 무상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언제나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곧 죽을 목숨인줄도 모르고 아까워서 별별 떨기도 하고 권력에 탐착하기도 한다. 생노병사를 통한 괴로움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등등을 보면서도 무상이란 것을 깨치지 못하고, 영원한 것처럼 추구하는 모든 것이 실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악업만 쌓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전도된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견으로 인한 사전도의 상·락·아·정을 사념처를 통하여 바로잡게 될 때

에 그것을 열반의 사덕(四德)이라고 한다. 즉 열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상·락·아·정은 변하지 않는 진정한 상·락·아·정이 된다. 항상 불변하는 무생명의 상(常)을 상덕(常德)이라고 하며, 모든 괴로움이 멀어져 영원히 적멸 안락을 누리는 것을 낙덕(樂德)이라고 하고, 자유자재하게 되어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아덕(我德)이라고 하며, 일체의 더러움을 해탈한 것을 정덕(淨德)이라고 한다. 같은 상·락·아·정이지만 나라는 것에 집착하여 빚어지는 상·락·아·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사념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상·락·아·정은 불변의 사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은 신(身), 수(受), 심(心), 법(法)의 네 가지 처소에서 일어나는 망견인 상·락·아·정의 전도된 마음을 바로잡는 수행으로서 이를 통하여 부정, 고, 무상, 무아의 정법을 일으키고 바른 지혜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몸의 부정과 느낌의 괴로움, 마음의

무상, 법의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의 핵심이다.

사념처 수행을 신수심법에 따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념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의 몸은 과연 깨끗한 것인가? 아무리 몸을 치장하고 이쁘게 꾸며도 우리 몸의 아홉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은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목숨이 끊어진 시체는 설혹 그것이 절세미인의 것이라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몸의 더러움을 관하여 살피는 것이 사념처 가운데의 신념처이다.

수념처 수행에서 '수(受)'라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인데 우리가 바깥 세계와 접촉할 때는 반드시 싫은 느낌[고], 즐거운 느낌[낙], 싫지도 좋지도 않은 느낌[사(舍)]이 있다. 이러한 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괴로운 느낌은 당연히 괴로운 느낌이지만 즐거운 느낌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상이므로 즐거움도 다할 때가 있고 즐거움이 끝날 때는 오히려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즐거움이 항상 그대로 머무는 것처럼 집착하는 것이 전도된 낙이며 이러한 느낌을 관찰하여 괴로움인 것으로 바로 아는 것이 수념처의 수행이다.

심념처는 마음을 관찰하여 무상한 것임을 아는 수행이다. 마음은 생명의 본질이고 모든 중생의 삶을 이끌어 가는 중심체이지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인연화합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순간순간 생멸하며 이어져서 찰나도 머무르는 법이 없다. 이러한 것을 관찰하여 무상이라는 것을 아는 해력을 기르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常)이라고 잘못 아는 전도망상을 타파하는 것이 심념처의 수행목적이다.

법념처는 우주 만법이 모두 인연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고정불변의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아'라는 것은 실은 가아(假我)이다. 이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아(眞我)로 생각하고 온갖 망견과 집착을 일으킨다. 이러한 가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집착 또한 온갖 괴로움을 낳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법념처의 수행이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자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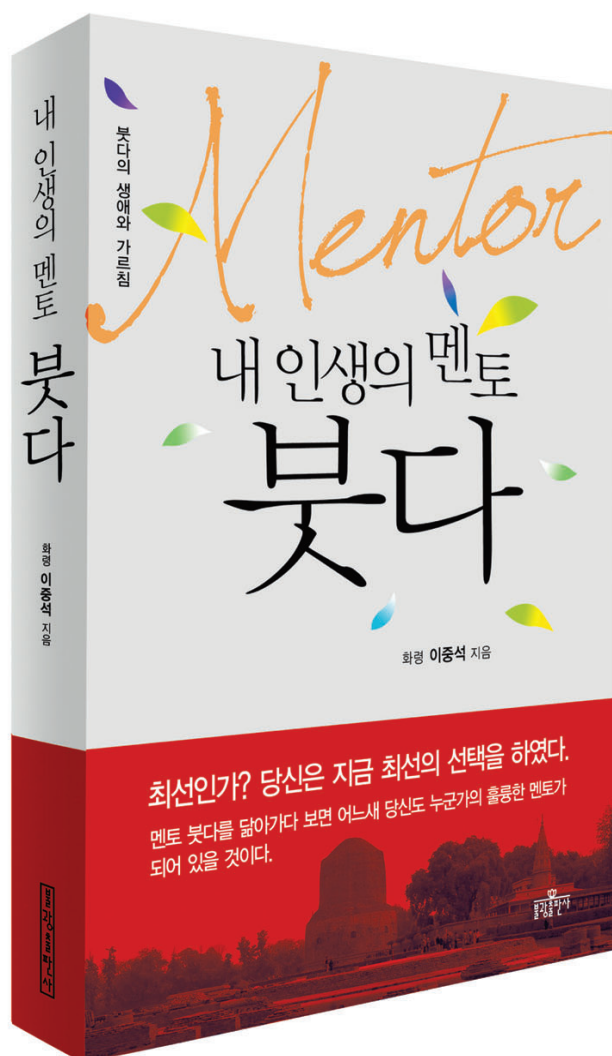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지 상 설 법

마 음 의 안 정



안성정사 (국광사 주교)

마주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대개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처럼 만난 사람에게도 비슷한 말로 “평안하시지요?”라는 정도의 인사말을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안녕(安寧)과 평안(平安)은 다른 말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녕하고 평안할까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근심 걱정과 번민, 갈등, 괴로움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룬 결과, 우리에게 설하신 주된 내용은 ‘고통, 괴로움을 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평온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해탈, 열반’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해탈, 열반은 고통, 번뇌, 괴로움 등의 불선(不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평온이라 달리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상(理想)일 뿐 현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평온을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하지 않더라도 절대 마음에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며 오히려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억(追憶)이라 하는 가 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므로 속상해 할 필요도 없고 집착하거나 괴로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가 바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므로 괴로워하거나 집착하거나 속상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절대 낙담하거나 마음마저 힘들어져 겨울 날씨처럼 차가워지고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은 곧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자 지혜가 있을 수 없고, 괴로우므로 행복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불행(不幸)입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 “마음이 안정 되지 못하고 진리도 또한 알지 못하며 세상일에만 미혹된 자에 바른 지혜가 있을 수 없다. 무지한 자가 얻은 지식은 그에 이익을 두기는 커녕 도리어 그의 행운을 깨고 항상 고통만 불러들인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뜻이 편하다. 비유하자면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한 것과 같아서 지혜있는 자 도를 들으면 마음이 맑고 고요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경전의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바른 지혜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거나 미운 마음이 가득하면 얼굴도 밝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로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탁해 지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계정에 삼학을 닦도록 하고 있는데, 계(戒)를 지키므로 맑고 고요해지고(定) 여기에서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하면, 절대 마음이 안정이 안 되지요. 벌써 마음이 불안해져 있으므로 좋은 생각도 바른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한 군데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만큼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항상 고통만 불러들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무지(無智)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지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은 모두 알아차리는데, 정작 본인은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욱 어긋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하다. 어찌 본인은 자기 잘못을 그렇게 모르는 가’하고 안타까워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행과 불교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더욱 악업만 짓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의 하나이지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상(我相)입니다. 어리석을수록 아상이 높습니다. 아상이 많은 것은 본인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오히려 어리석음이 더 많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상이 없습니다. 겸손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고요한 지혜를 지닌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과법을 잘 알고 그래서 실천도 잘하고 하면, 바로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부처님 법 듣는 것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열심히 듣고 법대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안정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법대로 실천하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고요함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은 마음이 곧 평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생활이 편안한 것은 원수를 맺거나 원한진 일이 없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은 원수를 맺지만 나의 행에는 원수진 이가 없다. 나의 삶이 이미 편안한 것은 근심하거나 애려우지 않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은 근심이 있어도 나의 행에는 근심이 없다. 이기면 이배 원수가 생기고 저면 이배 곧 배가 싫으니 이기고 저는 마음 버리고 다독없으면 배가

편해지리라.” 즉, 마음 편한 생활에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은 곧 내마음이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편안한 것이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편안한 방향으로 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제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이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삶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힘들지 않는다는 기준은 마음을 편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부단히 노력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인과(因果)는 자신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주위 사람을 위하여, 생활에 여유를,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합니다. 마음의 안정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합시다.

진리의 여울

네 가지 그 지 없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고, 버리는 네 가지 그지없는 마음(四無量心)을 수행해야 한다. 여래는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어떤 중생이 재산을 탐하면, 그를 위해 왕이라도 되어서 그의 요구대로 갖가지 물건을 주어 기쁘게 한 뒤 바른 깨달음의 길로 교화한다. 어떤 중생이 오락락(五欲樂)을 탐하면, 오락락으로 그의 소원을 풀어 준 뒤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그를 편안하게 한다. 또 어떤 중생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면, 그의 하인이 되어 시중을 들면서 마음에 들게 한 뒤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어떤 중생이 성질이 사나워 자기 고집만을 세우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몇 천 년이라도 그를 타이르고 달래어 마음을 누그러뜨린 뒤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것이다. 선남자, 여래는 이와 같이 끝없는 세월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권유하고 교화하여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여래는 나쁜 무리 속에 있더라도 물들지 않음이 연꽃과 같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성내는 일을 끊게 되며, 기쁜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과 차별 두는 마음을 끊게 된다.

이 네 가지 그지없는 마음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된다. 보살이 가난한 중생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낼 인연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면 보시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보시라는 인연으로써 중생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보시를 하면서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탐착심을 내지 않으면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보살은 부모와 원수를 대할 때에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여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곧 사랑(慈)의 성취다. 그러나 큰 사랑(大慈)은 아니다. 큰 사랑은 실로 이루기 어렵다. 끝없는 세월에 번뇌만 쌓고

선한 법을 닦지 않았으므로 하루동안에 마음을 조복할 수 없다. 이를테면 마른 완두콩은 송곳으로 찢어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번뇌의 굳기도 그와 같다. 그러나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이롭고 즐겁지 않은 일은 없애버린다. 이것이 대자(大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이로움과 즐거움을 준다. 이것이 대비(大悲)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대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기뻐한다. 이것이 대희(大喜)다. 보살은 모든 법을 볼 때에 평등한 마음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자기 기쁨을 남에게 준다. 이것이 대사(大捨)다. 이 네 가지 그지없는 마음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 된다.”

〈열반경 고귀덕왕보살품〉
정리= 최영아 위원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지혜로운 어린이

+ 예의바른 어린이

+ 건강한 어린이

최고의 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헌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권역동 1층
문의 02-445-2326



통일의 염원을 품은 산신 대구 팔공산 파계사 산신각

대구의 진산 팔공산

대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팔공산’이다. 팔공산하면 ‘갯바위 부처님’, 동화사, 파계사 등 연관되는 단어는 모두가 불교와 관련된 단어다.

그만큼 팔공산은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 팔공산은 대구광역시 동구와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군위군 부계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지역민들은 오래전부터 ‘공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태백산맥의 연봉으로 보현산(普賢山, 1,124m)에서 내달린 봉우리는 서남쪽으로 화산(華山, 828m)·팔공산·가산(架山, 902m)으로 연결된다. 팔공산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형성된 환상(環狀)의 산지는 대구분지의 북부를 병풍처럼 가리고 있어 ‘팔공산맥’이라 부른다.

이 산맥은 남동쪽의 초례봉(雕禮峰, 648m)에서 시작하여 환성산(環城山, 811m)·인봉(印峰, 887m)을 거쳐 주봉인 팔공산, 북서부의 가산에 이른다.

또한 팔공산은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東峰)과 서봉(西峰)이 양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솟아 있다. 인봉에서 가산까지는 팔공산맥의 주형으로 길이가 약 20km에 이른다.

여덟 장수의 충절이 서린 팔공산

팔공산의 남쪽은 경사가 완만해 진다. 응해산(鷹蟹山, 526m)·응봉(456m) 등의 구릉성 산지가 솟아 있고, 그 사이사이에 계곡물이 남쪽으로 흘러 동화천(桐華川)에 모여 금호강(琴湖江)으로 흘러든다.

계곡이 아름답고 산봉우리가 웅장하여 곳곳에 많은 사적들이 남아있다. 1980년 경상북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팔공산의 옛 이름은 공산(公山)·부악(父岳)이라고 하였다. 팔공산의 이름과 관련하여 신라 말에 견훤(甄萱)이 서라벌을 공략할 때, 고려 태조가 5,000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러 나섰다. 공산 동수(桐葢)에서 견훤을 만나 포위 당한다.

그 때 신숭겸(申崇謙)이 태조 왕건으로 가장하여 수레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함으로써 왕건은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 이 때 신숭겸·김락(金樂) 등 8명의 장수가 모두 전사하여 팔공산이라 하였다 한다.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하나는 이룬다는 갯바위 부처님



팔공산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영험(靈驗)의 상징으로 불리는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 일명 갯바위)이 있기 때문이다. 관봉 석조여래좌상은 경산시 와촌면 대항리(大閑里) 골짜기에 있으며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형상의 좌불상이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소망을 기원한다. 관봉 석조여래좌상은 해발 850m에 위치하며 높이는 약 6m이며 머리의 갓 지름은 1.8m이다. 신라 선덕왕 때 의현대사(義玄大師)가 어머니의 님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머리에 쓴 갓의 모양이 대학학사모와 비슷하여 입시철 합격을 기원하는 행렬이 해마다 북새통을 이룬다.

곳곳에 스며든 불교문화의 향기

팔공산 산자락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의 본산인 동화사(桐華寺)를 중심으로 부인사(符仁寺)를 비롯한 파계사(把溪寺)·관암사(冠巖寺)가 있다.



영천 방면에 있는 은해사(銀海寺)에는 국보 제14호인 거조암영산전(居祖庵靈山殿)이 유명하고, 칠곡군에 있는 송림사(松林寺)는 신라 시대의 사찰로 보물 제189호인 오층전탑이 있다. 팔공산의 북측 자락인 군위군 부계면에 있는 군위삼존석굴(軍威三尊石窟, 국보 제109호)은 제2석굴암이라 불린다. 또한 작고 큰 암자들이 산의 곳곳에 자리를 잡고 범등을 이어가고 있다. 중심 사찰인 동화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장 유정이 승군들을 지휘하던 곳으로 팔공산 등산로의 거점이기도 하다. 동화사 근처에는 간장 질환에 효험이 있다는 구세약수(求世藥水)가 있어 건강을 찾고자하는 탐방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팔공산 산신은 김유신 장군?

팔공산 산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사찰 마다 산신을 모시고 있었다. 파계사에서 만난 팔공산 산신은 주전인 원통전 뒤편에 한 칸짜리 산령각에 모셔져있었다. 산신은 세명의 동자들로부터 시봉을 받으며, 오른쪽에 호랑이를 아래에 두고 전방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구름, 소나무, 바위를 배경으로 앉은 산신은 다른 지역의 산신들보다는 다소 연로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마에 깊이 패인 5개의 주름과, 안광이 빛나는 두눈, 우뚝 선 콧날에서 한 시절을 호령한 장군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계룡산 산신의 후덕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팔공산 북측 군위군의 민간 신앙에서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 김유신 장군(595년~673년)을 팔공산 산신으로 모시고 있다. 장군신의 하나로 산신 혹은 마을신으로 김유신 장군이 신앙되어지는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군위군, 서울시 용산구 일대가 대표적인이다.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경상도 군위현에 김유신신사(金庾信神祠)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만명(萬明)을 모시고 있으며, 무녀들이 그 만명을 섬기는데 신당에는 반드시 명도(明圖)라는 구리거울을 걸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단오조에서도 “군위군 효령(孝靈) 서악(西岳)에 김유신사당이 있는데 속칭

삼장군당(三將軍堂)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현재에도 경북 군위 지역의 무속인 대부분이 김유신을 팔공산 산신으로 모시고 있다.

신격화된 김유신 장군의 일대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에 실려 있고,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제2 김유신조(金庾信條)에도 그의 행적에 관한 단편적인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다. 김유신과 팔공산의 인연은 장군이 화랑 시절 팔공산에서 수련을 한데 기인한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장군은 팔공산의 산신이되어 불법을 외호하며 민초들의 수호신으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

팔공산은 지금도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화사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약사대불’이 대구 시내를 바라보며 서있다. 108 번뇌를 상징하는 계단을 오르면 일만 여평의 도량이 나온다. 좌대(座臺) 높이 13m를 포함하여 30m 높이의 통일약사대불은 108명의 석공들이 약 7개월 동안 만들었다. 대불의 조성 당시 서원했던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은 아직 실현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불자들은 오늘도 진심으로 자신과 나라의 안녕을 서원하고 있다.

대구=김종열 기자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전문상담교사 공개채용

2013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동해중학교)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과목 및 인원 : 선발예정과목 - 전문상담 | 선발예정인원 - 1명

▶ 응 시 자 격 : 전문상담교사 (1·2급)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 자격증 소지자,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시 험 일 정 : 제1차시험 - 교육학, 전공 | 시험일 - 2012.11.10(토)
제2차시험과 3차시험은 합격자 발표시 동해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응 시 원 서 접 수 : 접수기간 - 2012.10.8(월) ~ 10.12(금) | 접수장소 - 동해중학교 행정실 (051-556-0281)

기타사항은 동해중학교 행정실 (051-556-0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호에서 금강계만다라의 사불(四佛) 가운데 동방의 아축불과 남방의 보생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아축불은 ‘발보리심’의 여래, 보생불은 ‘수행정진’의 여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호에는 서방의 아미타불과 북방의 불공성취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사불(四佛)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방의 아축불에서 북방의 불공성취불에 이르는 사불(四佛)의 공능(功能)과 그 형태는 진언행자가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과 정진을 통해 선정에 들고 중국에는 깨달음에 이르는 일련의 수도(修道)과정을 나열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생이 성불에 이르는 수행 계위(階位)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불(四佛)의 형태는 진언행자가 정진을 통하여 선정에 이르는 수도(修道) 과정이자 성불에 이르는 길을 표현한 것이다

선정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아미타불』 영원한 열반적정의 세계로 인도

수행과 정진을 통해 선정에 이르게 하는 공능(功能)을 지니신 부처님이 서방의 아미타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은 태장계만다라의 무량수여래와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덕성(德性) 가운데 ‘선정과 적정’의 공능(功能)을 주관하는 여래입니다. 아미타(阿彌陀)는 불사(不死), 즉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을 서방 극락정토의 세계라 합니다. 선정과 적정에 들어 영원한 열반에 드는 영원한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세계입니다. 열반적정은 아미타불, 무량수여래가 주관하는 덕성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成道) 후에 영원한 열반적정에 드셨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미타’입니다. 불사(不死), 즉 영원한 목숨을 지닌 분이므로 아미타불이라 한 것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그 부처님은 서방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무량수여래는 비로자나불의 서방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서방 극락도사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불ان되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대개 ‘극락전’ ‘미타전’ ‘무량수전’ 등으로 불리는 전각에 주불(主佛)로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불 한 분을 모신 곳도 있지만 대부분 삼존불(三尊佛)로 모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이라 하여 중앙에 아미타불, 좌우에는 협시보살로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간혹 지장보살 대신에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모시기도 하는데 대세지보

살은 밀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협시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불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장보살 신앙은 중국의 도교, 정토교, 삼계교와 접목되면서 죽은 자를 극락왕생케 한다는 의미가 더 큼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불은 극락왕생 사상과 연결되어, 중생을 극락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강조된 부처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아미타불은 망자를 서방극락정토로 왕생케 하는 부처님이자 『무량수경』에 나오는 아미타불로서 전생보살인 법장비구가 사십팔대원을 세워서 성불(成佛)하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부처님은 여기에 덧붙여 비로자나불의 내증(內證)으로 나투신 부처님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아미타불을 세자제왕(世自在王)이라 부릅니다. 대비심(大悲心)으로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열반적정에 들게 하므로 세자제왕(世自在王)이라 한 것입니다. 이 부처님이 바로 밀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을 협시보살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세지보살은 비로자나불의 내증으로 현현

한 보살로서 아미타불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세지(大勢至)는 아미타불의 ‘세자제(世自在)’라는 별호(別號)와 같이 ‘대비심을 자재(自在)하게 작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아미타불의 공능(功能)을 드러내는 협시보살인 것입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켜 열반적정에 들게 합니다.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 형식은 『관무량수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지종의 득락전은 협시보살로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밀교종단이므로 당연히 대세지보살을 모셔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에 근거하여 본존을 모셨고, 아미타삼존을 역시 여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신 것입니다. 『대승장엄보왕경』 제4권의 ‘무량수여래의 오른 편에 지대마니보보살(持大摩尼寶菩薩)을 안립하고, 부처님의 왼 편에는 육자대명다라니를 안립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대마니보보살(持大摩尼寶菩薩)은 ‘커다란 구슬 보배를 지닌 보살’로서 지장보살을 의미합니다. 즉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삼존불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독송할 때도 마지막 구절을 ‘나무아미타여래 나무관



법경 정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6)

사불(四佛)Ⅳ.

서방의 『아미타불』과

북방의 『불공성취불』



아미타불 : 열반적정의 여래



불공성취불 : 중생구제와 성도(成道)의 여래

세음보살마하살 나무지대마니보보살마하살’이라 독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을 나타내는 진언 종자는 ‘호리(hrih)’입니다. 이 종자자(種子字)는 본성청정(本性淸淨)한 까닭에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번뇌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언은 ‘옴 로게스바라라자 호리’라고 합니다. ‘옴 세자재왕이시여 호리’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의 수인(手印)은 익히 알고 있듯이 두손을 포개어 놓은 모양을 하고 있는 ‘미타정인(彌陀定印)’입니다. 선정인(禪定印)이라고도 하며, 총지종에서 ‘담’ 자판을 행할 때 취하는 수인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존형(尊形)은 적색신(赤色身)이며 우견편단(右肩偏袒)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성취불』, 석가모니불의 동체(同體) 중생구제의 작용력과 성불을 상징

북방의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은 비로자나부처님의 공능(功能) 가운데 중생구제와 성불을 주관하는 부처님입니다. 태장계만다라의 천고 뇌염여래와 같은 덕성(德性)을 지니고 있으며

두 여래는 모두 북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바로 석가모니불의 동체(同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중생구제를 위하여 현세에 나투신 부처님입니다. 밀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현세에 나투신 부처님을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이라 부릅니다. 그 명호(名號)는 ‘헛되지 않게 비로자나부처님의 작용력, 활동력을 성취토록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진실설경』에 의하면, 비로자나불이 최상승(最上勝)의 작용력을 성취케 하는 삼매에 들었는데 그때 어깨 위에서 오색(五色)의 광명(光明)이 방출하여 북방의 세계를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오색의 빛은 바로 중생구제의 법광(法光)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광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헛되지 않으며 빈 곳(空)이 없으므로 불공(不空)이라 합니다. 일체 중생들을 두루 비추고 있음을 말합니다. 비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처님의 광명과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추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것을 성취케 하는 여래이므로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공성취불의 진언 종자는 ‘아흐(ah)’입니다. 이 진언 종자는 불교가 이상으로 하는 적정(寂靜)의 경지인 열반을 상징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중생을 위하여 시험하셨고 중생에게 궁극적인 이상인 열반을 설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 부처님이 펼치는 중생구제의 작용력과 덕성(德性)을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이 ‘아흐’입니다. 불공성취불의 존형(尊形)은 녹색신(綠色身)으로 왼손은 금강권을 쥐고 배꼽 앞에 놓고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명 중생에게 불안과 두려움, 공포심은 커다란 장애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멸하여 열반적정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이 불공성취불입니다. 그래서 진언을 ‘옴 아모까시떼 아흐’라 합니다. ‘옴 불공성취존이시여 아흐’의 뜻입니다. 불공성취불을 친견하고 예경하면 불안과 초조, 원망심과 진심을 없애며 원하는 바를 얻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존조 원정 대성사께서 계송으로 사불(四佛)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당은 금강법계 비로자나 궁전이라.
정보리심(淨菩提心) 아축불은 그 동방에 항상 있고,
만법능생(萬法能生) 보생불은 그 남방에 항상 있고,
설법단의(說法斷疑) 아미타불 그 서방에 항상 있고,
이리원만(二利圓滿) 성취불은 그 북방에 항상 있다.
아축불과 같이 살면 보리(菩提)구할 마음나고,
보생불과 같이 살면 공덕(功德)모여 장엄하고,
미타불과 같이 살면 지혜(智慧)열려 안락하고,
성취불과 같이 살면 대정진(大精進)에 고(苦)여원다

다음호에서는 ‘육관음보살(六觀音菩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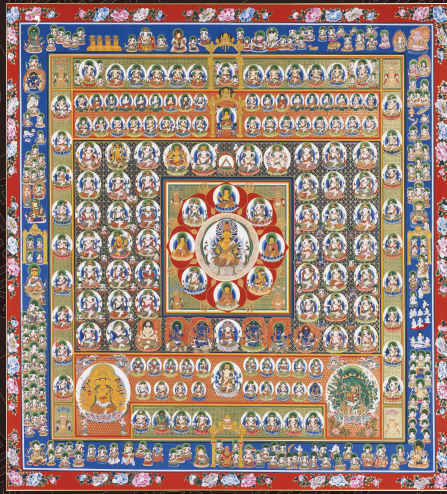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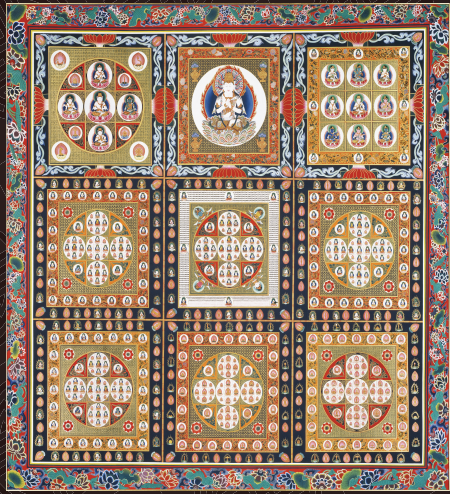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勇猛
精進

제1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2012년 9월 15일 (토)
하남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주 최 불교총지중

종 목 축구, 족구

주 관 FC붓다, 총지드레곤즈

후 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금강신문, 주간불교신문, 조계종출판사,
불광출판사, 불교서적총판(주)운주사, 미얀마문화원,
마하연투어, (주)다나, 연동산업, 아제여행사

문 의 불교총지중 02) 508-8933 010-6661-3593

FC붓다 010-7339-8688

충지동의보감

여성빈혈의
원인과 안방치료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빈혈은 의학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양이 적거나 적혈구의 숫자가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지러움 증상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어지럽다하여 빈혈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빈혈의 증상으로는 운동시 호흡곤란이 오거나 맥박이 심하게 뛰고 쉽게 피로하며

두통이나 귀가 울리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흔히 빈혈을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철결핍성 빈혈로 주로 자궁내질환(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등으로 인해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임신기간 동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만성적인 위장관의 출혈로 인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혈이 장기화될 경우 안색의 창백함과 피부자체가 탄력성을 잃게 되며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등의 전신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빈혈외에도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기능의 이상(간(肝)이나 비위(脾胃)기능저하)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혈허(血虛)의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하게 되며 혈(血)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무형(無形)의 기(氣와) 유형(有形)의 혈(血)이 존재하여 오장육부를 영양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갈 수 있도록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 혈액은 기운을 따라 인체를 돌게 되므로 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즉 기운이 부족한 상황과 다르지 않으며 혈액을 보충하고 보강할 때에는 반드시 기운을 함께 돌구어 주어야 정상적인 회복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빈혈의 치료법은 원인을 찾아 제거해주는 것이며 가장 흔한 철결핍성빈혈의 경우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수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의 대표적인 혈허(血虛)치료에는 녹용이나 당귀, 천궁 등이 활용되어지며 적혈구의 형성을 돕고 혈액색소의 양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5개월 이상되면 빈혈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해 철분제를 복용하지만 대부분이 위장이 약한 여성들에게는 소화장애나 변비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 적절히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절기능을 높이고 혈액생성을 도와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당귀와 천궁을 각 2:1의 비율로 섞어 차처럼 끓게 달여 하루 두 번 정도 차처럼 드시면 보혈작용과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불자생활법률

예금 공동명의자 중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까?

시아버지 김씨과 며느리 이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 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며느리나 시아버지의 단독으로 예금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구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고, 통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은 자식의 양육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시아버지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며느리가 위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하여는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
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떡잡채는

원래 가래떡과 불고기의 조합인 궁중떡볶이에서 유래되었으나 소고기를 넣지 않아도 새송이와 어묵으로 그 풍미가 빼어나고, 당면으로 만든 잡채보다 맛과 영양이 좋을 뿐 아니라 떡이 들어가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식품이다.

달콤쫄깃 떡잡채

재료 준비

가래떡 굵은 것 2줄, 당근 1/4 개(중간 크기) 새송이 버섯 2개, 어묵 2장, 파프리카 색깔별로 약간씩, 쪽파 반줌, 달걀 지단 (흰자, 노른자), 다진 마늘 1작은술.
양념 재료: 간장 1큰술, 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식용유 2큰술, 설탕 1작은술
가래떡 유장 양념: 간장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조리 방법

1. 단단한 가래떡은 가늘게 썰어(두께 7mm 정도, 길이 5 ~ 10cm 정도) 끓는 물에 잠시 담가 말랑하게 하고 찬물에 급방 씻어 쫄깃한 상태 그대로 준비한 가래떡 유장 양념에 버무려 둔다.
2.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르고 다진 마늘 1작은술을 볶아 기름에 마늘 향을 내고 재료 중에서 제일 단단한 당근을 먼저 볶기 시작한다.
3. 당근이 투명하게 익으면 새송이 버섯과 파프리카 채 썬 것을 살짝 볶아 준다.
4. 어묵도 채 썰어 뜨거운 물에 잠시 담가 기름기와 식품 첨가물을 제거한 다음 볶던 재료에 넣고 준비했던 양념 재료로 양념한다.
5.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마지막으로 유장 양념에

버무려 두었던 위 1항의 떡과 쪽파 반 줌을 넣고 같이 볶아 준다.

6. 여기에 달걀 지단을 얹어 주면 달콤하고 쫄깃한 떡잡채가 완성된다.

기타 팁

1. 가래떡 썬 것은 끓는 물에 불린 다음 찬물에 씻어야 쫄깃하고, 유장 양념에 버무려야 달라붙지 않는다.
2. 파프리카는 오래 볶으면 변색 되므로 아삭할 정도로 살짝 볶아야 한다.
3. 재료를 볶다가 팬에 달라 붙는 것 같으면 물을 조금 넣고 볶으면 좋다.
4. 간장으로 색과 맛을 내고 간은 소금으로 입맛에 맞게 조절한다. 색이 너무 진하면 음식이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
5. 다진 마늘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식용유에 마늘 향을 내준 다음에 볶으면 훨씬 풍미가 좋아진다.
6. 다진 마늘 대신 마늘을 채 썰어서 볶으면 더 깔끔하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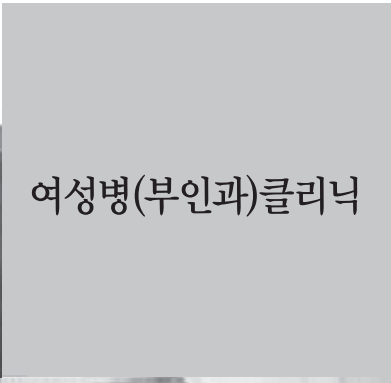
여성美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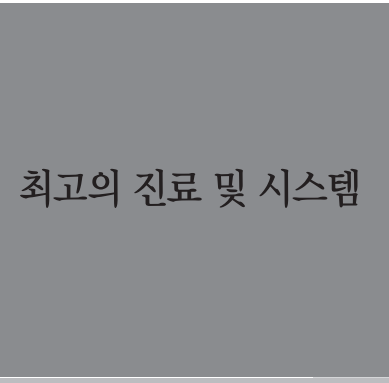
저주파 치료기



혈액 분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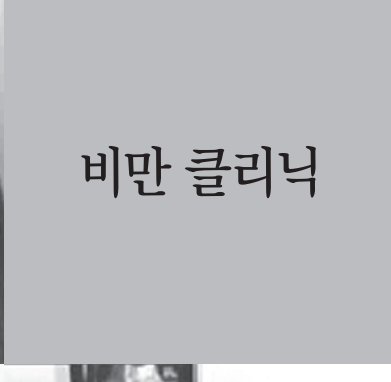
온열 전기침



가죽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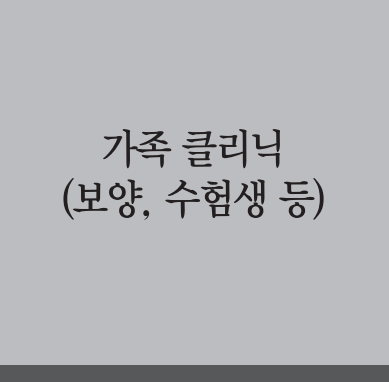
좌훈욕기



자동팔강진단기



저주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진료과목

1) 비만클리닉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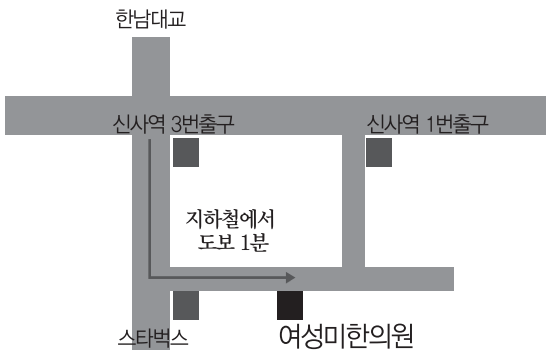
2)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 장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 좌약 요법 (자경단, 요실진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가족클리닉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

오시는길



진료시간
평일 9:30~18:30
주말 9:30~16:00
점심시간 13:00~14:00

문의 & 상담
02) 545 - 0072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상담해드립니다

풍경소리

선풍기

여러분의 마음은
고정 버튼인가요?
회전 버튼인가요?

선풍기 하나를 쓰는 데도
마음 씹씹이가 숨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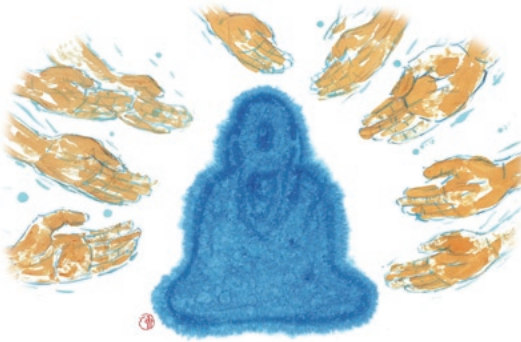
이계목 | 재가수행자

회전 버튼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고, 주위 사람들도 좋게 하는 마음이고
고정 버튼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이겠지요.



나누면 남는다

어느 사람이 대중을 향하여
"작은 술 하나에 떡을 찌면 세 명이 먹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천 명이 먹으면 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찍이 서 계시던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 모자라고 나누면 남지."



송고승전 中

이달의 사진

물레방아 도는 개천사의 가을



사진=대구 개천사 김종열 기자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5편 타인에 대한 덕의 490p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 화 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된장 1kg : 20,000원
간장 1.8L : 10,000원



전시

600년 종로의 역사를 한눈에 『육의전박물관』 개관 -유적보전과 개발의 상생을 이루어 낸 최초의 박물관

종로는 조선의 역사에 있어 한양백성들에게는 생활의중심이었다. 종각을 시작으로 지금의 광장시장 사거리까지 육의전을 비롯한 상업의 중심인 시전이 열렸던 곳이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로의 역사를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육의전박물관』이 개관했다. 유적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으로 불자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40번지 ‘육의전빌딩’ 지하1층 문의전화 02)722-6162

도심 재개발과정에서 발견된 종로의 역사



종로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개관했다. 종로 탑골공원 옆 육의전 빌딩 지하에 8월 30일 개관한 『육의전 박물관』(관장 황평우)이다.

지난 2003년 12월 말,

한 건설사가 종로 2가 40번지 일대 주상복합건물 사업시행을 위해 낡은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3만㎡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 문화재지표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곳 재개발 면적은 8665㎡로 따라서 지표조사 없이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장소다. 터 파기를 시작하자 건물 기초석인 장대석(長臺石)이 발견되었고, 즉시 문화재청에 신고된다. 언론보도가 나가자 도심재개발 때도 문화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삼시간에 형성된다. 문화재가 발견된 이상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전문가들의 임회 아래 문화재청 조사가 이뤄졌고, 본격 발굴에 들어갔다. 결과는 조선 초기부터 현대까지 600년간의 서울 역사가 6개의 문화층으로 켜켜이 쌓여 있었다.

최하층부터 조선 건국~15세기 중반(6문화층), 임진왜란 전후(15세기 후반~16세기·5문화층), 17~18세기(4문화층), 18세기 후반~개항 이전(3문화층), 개항~일제강점기(2문화층), 해방이후~현대(1문화층)까지 모두 나타났다. 시전의 행랑(行廊)이 정연하게 노출되었고, 특히 임진왜란 시기인 5문화층에서는 30cm의 소토층(燒土層:불에 탄 흔적)이 쭉 깔려있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종로 시전을 비롯한 한양 전역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그 이후 한참 복구되지 않았음을 증언해준다.

조유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한마디로 ‘조선의 재발견’이라 볼니다. 사실 조선은 고고학적 관점에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던 주제거든. 워낙 문헌이 자세하니까 고고학 발굴로 구명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청진동 발굴로 조선의 역사, 그것도 서민들의 삶이 묻어난 생활유적이 고스란히 나왔으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도심 재개발 때도 빠짐없이 문화재조사가 선행되었으니까 청진동이 ‘조선 발굴’의 신호탄을 쏘았다면 종로2가(육의전박물관)는 개발과 문화재보존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합니다.”며 서울 도심 발굴의 의의를 말했다.

현장보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

제1차 발굴 조사가 끝난 후 열린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는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 위치 보존 결정을 내린다. 일단은 공사가 중단 된 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되었다. 개인의 재산인 토지와 건물 신축을 위해 이미 철거한 기존의 건물은 예전으로 복구는 불가능 한 것이다. 건물주와 위원회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앉았다. 유적의 보존과 건물의 신축을 동시에 고려해, 신축하는 건물의 지하에 박물관을 조성하여 유적을 보존하고, 8층짜리 건물을 신축하자는 방안에 합의한다. 기존의 법률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유적의 보전과 개발의 상생 방안을 동시에 찾은 획기적인 사례를 남긴다.

박물관 조성을 위하여 『육의전박물관 건립위원회』가 바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내외 연관 있는 유적전시관을 수 십 차례 견학하고 장단점을 분석한다. 또한 고고학, 민속(시장관련), 문화재 보존과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육의전박물관 조성을 위한 연구와 자료조사, 전시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종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최초의 박물관이 문을 연 것이다.

육의전 박물관의 대표유물 -아시아 최대의 유리막 유적전시관



현장 발굴 결과 육의전 터에서는 15C, 16C 시전행랑 유적이 발견되었다. 박물관은 유적 위에 유리막을 덮어 두 시기의 유적을 층을 두고 그대로 전시하였다. 관람객이 유리막 위를 걸으며 유적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직접 유적을 관찰할 수 있다. 유리막 전시는 한국의 국공립박물관을 통틀어 가장규모가 크며,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 공간이다.

-고고학 발굴조사 후 “토층”의 입체적 전시



대부분의 박물관과 유적 전시관은 고고학유적에서 발견된 토층을 전시한다. 고고학에서 토층은 발굴지역의 지하층에 퇴적된 역사와 문화를 판단할 수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층전시는 토층을 떠서 그대로 전시만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는 매우 미흡했다. 이 박물관 토층은 발굴지역에서 두 곳의 (피맛길, 시전행랑) 토층을 떼내서 입체전시를 하였고, 토층표면에 시기구분선을 표시하여 일반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였다. 토층과 토층사이에 시기별 역사적인 사건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무대 15세기 피맛길 원형 보존

박물관에 전시된 유적에는 15C와 16C의 피맛골의 유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피마(避馬:말을 피하다)의 뜻을 담은 피맛골, 또는 피맛길은 조선 시대 일반백성들이 고관대작의 큰길(종로) 행차를 피해 잠시라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 접어들던 골목이다.

조선시대에는 현재 종로 1가에서 흥인문까지 큰길

양쪽 뒤편에는 시전 행랑 한두 채 간격을 두고 큰길과 거의 평행을 이루며 난 좁다란 골목길이 있었다. 이곳은 일찍부터 서민들의 거리로 팔죽 집, 떡집, 밥집, 설렁탕집, 선술집, 앉은 술집 등이 몰려 있었다. 또한 피맛골 일대는 시전상인들의 경제활동과 주거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전 행랑에는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공인(工人)들의 작업공간이었으며, 술판과 노름판이 벌어지는 뒷골목이며 소비의 공간 이었다.

- 육의전 “저포전기” 완벽 복원



저포전은 모시를 파는 조선시대 시전의 하나로 지금의 종로 3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저포전기는 육의전의 중요한 제사인 재신제(財神祭), 시전진수제(市塵鎭守祭), 산신제(山神祭) 등에 사용했던 저포전(苧布塵)의 기(簾)다.

제신제는 10월에 남대문 밖 남묘(南廟)에서 지냈으며, 시전진수제는 종로 보신각

옆에 있는 소묘(小廟)에서 올렸다.

저포전기는 칠보문단, 용, 벨벳으로 만들어졌으며, 앞뒤 글자의 모양이 같다. 기의 몸체나 꼬리부분의 색깔이 녹색(靑), 홍색, 황색, 백색, 흑색의 오방색(五色)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방색은 오방신장, 오방장군(五方將軍) 등에서 각 방위와 그 방위의 신을 의미한다. 저포전기의 상부에 횡단목을 끼울 수 있게 만들고, 끈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아 매달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피바디엑세스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조선시대 저포전기의 사진과 치수를 바탕으로 이를 복원하여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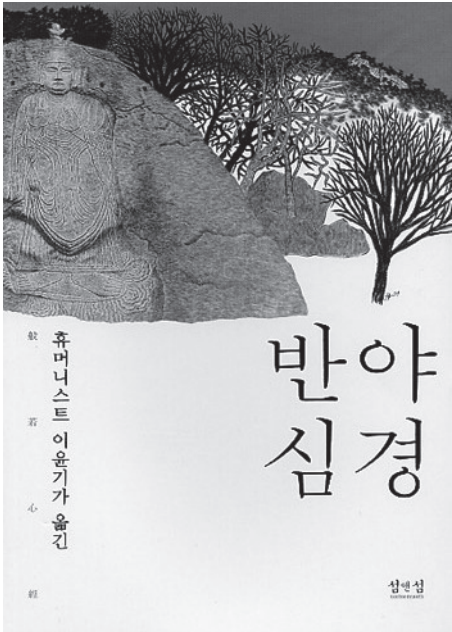
취재=김종열 기자
사진제공=육의전박물관

라즈니쉬의 비유적 설명으로 듣는 ‘공’

휴머니스트 이윤기가 옮긴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강/ 이윤기 옮김/ 섬앤섬

불교서적 에세이



라즈니쉬를 처음 만난 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바쁜 생활에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바빴기에 정신적 공허감을 느꼈었는데 그때 만난 라즈니쉬의 책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던 불교가 라즈니쉬를 거치면서 손에 잡힐 듯 와 닿았습니다. 추상적인 불교에서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불교로 다가온 것이지요. 그만큼 라즈니쉬가 설명하는 불교는 명료하고 쉬웠습니다.

최근 우연히 라즈니쉬가 해석한 <반야심경>을 이윤기 씨가 번역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섬앤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휴머니스트 이윤기가 옮긴 반야심경'이라는 책입니다. 라즈니쉬도 그렇지만 이윤기 씨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윤기씨가 쓴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그만의 독특한 글맛에 탄복했었습니다. 그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구루 라즈니쉬와 뛰어난 문장이 이윤기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라는 기대에 두 말 않고 이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반야심경>은 라즈니쉬가 1980년대 미국에서 한 강연을 라즈니쉬 재단이 책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염두에 둔 글이 아니라 청중을 대상으로 했기에 화법이 직설적이며 구어체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현장감과 직관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논리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라즈니쉬의 <반야심경>은 기존의 반야심경 해설서와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기존의 반야심경 해설서가 불교사상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해석에 치중한다면 라즈니쉬의 <반야심경>은 라즈니쉬식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여러 사상을 라즈니쉬가 자신만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새로운 언어로 뱉어내기에 이게 반야심경 해설서가 맞나, 하고 몇 번씩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손에 잡히는 기분을 만끽하게 되는 편입니다.

"불라는, 일체의 법은 '공'으로 차 있다고 말한다.

그 '무'는 모든 것의 중핵에 존재한다. 그 '무'는 나무 안에 존재한다. 그 '무'는 바위 안에 존재한다. 그 '무'는 별 안에 존재한다. 과학자들도 동의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별이 붕괴하면 블랙홀, 즉 '무'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무'는 예사 '무'가 아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지닌 '무'다.

블랙홀의 개념과 가설은 불타를 이해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108페이지)

반야심경의 주요 사상인 '공'을 '블랙홀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블랙홀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하니 이해가 빨랐습니다. 사실 공은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교의 본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깨달은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부처임을 알아라, 이 세상과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다 허공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연결해서 보면 허공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나인 것입니다. 이를 다시 블랙홀과 연결시키면 내 안에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지요. 결국 만물의 근원은 블랙홀, 즉 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블랙홀이 공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잡듯 막연하게나마 감을 잡게 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 '오온(五蘊)'은 시계 부속품과 시계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자아에 대해서도 꽤 오랫동안 설명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공과 자아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이고 '공'은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자기입니다. 이 둘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즈니쉬는 아주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로 이 둘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했습니다.

그저 외우는 경으로 알려 의식용으로 외우기만 하던 경에서 이렇게 깊은 의미, 실존을 발견해내는 것은, 아마도 라즈니쉬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상도 어떤 여과기를 거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재생산되는데 공의 경지에 좀 더 가깝게 이른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핵심에 더욱 근접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기고가
김은주